

여수시 청렴도시 만들기 박차...1등급 목표 36개 시책

고위 공직자 청렴 다짐 행사 열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 감찰활동 강화·반부패 교육 모니터링·시민감사관제 등 추진

여수시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만들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36개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는 지난해 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여수 구현'을 비전으로 36개 시책을 추진하는데, 특히 정기명 시장이 청렴도 향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공직자 윤리 의식 향상과 비위 예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존

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전문기관 의뢰 민원인 '청렴 콜' 사전 모니터링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 서한문' 발송 ▲반부패 홍보 다각화 등 시민 제감 청렴 인식 제고를 통해 외부제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또 내부제감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확대 운영 ▲내부직원 자체 청렴도 조사 ▲상호존중 '청렴한 데이' 운영 ▲청렴 아침방송 등 소통하며 즐거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전 부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확대 및 실천 다짐 ▲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확대 운영 등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 및 공직 비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시 공직자들의 불미스



여수시가 최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2024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다짐' 행사를 열었다.

(여수시 제공)

러운 일들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등 공직자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여 공직자와 청렴 실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청렴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 여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연중 무휴 자정까지 운영

중마대형약국 이달부터 개시

광양시 중마대형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다.

광양시에 따르면 중마대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365일 쉬는 날 없이 자정까지 아픈 시민을 위해 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 판매가 이뤄지는 곳이다.

보건소나 약사회에서 참여 희망약국 조사 후 최종 추천이 되면 전남도의 지정을 받아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시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약국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지역 약국 대부분이 약사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365일 심야 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심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약사회 간담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영을 추진했다.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 현황은 의약품 판매 및 상담 실적 4300건, 주 이용 연령층은 20~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질환과 해열 소염진통제 질환 관련 의약품 구입이 많았다.

김복덕 광양시 보건소장은 "소아·임산부 등의 료 취약층을 비롯해 광양시민 누구나 야간·휴일에 도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올해 유기질비료 3만5390t 공급

벼 육묘용 상토 1만925t 지원

고흥군은 올해 농가에 26억8000만원 상당 유기질비료 3만5390t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기가 찾아오면서 고흥군은 상토(床土)와 유기질비료 등 필수 농기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 비료업체가 생산하는 가족분퇴비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사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다.

또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농사 시작 전에 토양개량제 공급과 살포를 마쳐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땅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벼 육묘용 상토는 이달 말까지 모두 1만925t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밖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친환경농업 소관 농기기자재 지원사업' 13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에 이바지하고 농업경쟁력을 절감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흥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이 석곡권역과 옥과권역에 새롭게 건강증진센터를 열고 5일부터 체육 강습을 운영한다.

곡성군 석곡·옥과권역 건강증진센터 개소

곡성군은 석곡권역과 옥과권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열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석곡권역센터는 석곡종합회관 다목적 대강당에 마련됐다.

옥과권역센터는 사도골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한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곡성읍권역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열었다.

곡성군은 최근 옥과권 사도골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석곡권 종합회관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강증진센터 개소·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곡성출장소와 곡성군 체육회, 곡성체육인증센터 등 관계 기관과도 협업을 추진한다.

석곡권역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필라테

스와 노래 교실을 진행한다.

옥과권역에서는 고령자 에어로빅, 요가, 춤 강습 등이 펼쳐진다.

각각 강습에 5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전문가가 개별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율하고, 고혈압·당뇨 등 질환 관리부터 건강한 식생활 안내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강습을 펼친 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실을 추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관리하겠다"며 "지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차 4종, '더벤티' 전국 1300개 매장서 선보인다

에스앤씨세인과 업무 협약

보성군은 커피 유명 프랜차이즈 '더벤티'와 협업해 이달부터 보성차를 활용한 4개 제품을 전국 1300개 매장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더벤티'를 운영하는 ㈜에스앤씨세인 박수암 대표의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말차 아인슈페너, 말차 팅글초코, 말차 코코넛셰이키, 말차 유자아이드 등 4가지이다.

이 제품들은 보성차의 풍부한 맛과 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보성군은 차

소비의 새로운 추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보성군과 더벤티는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서 함께 보성차를 알리는 다양한 판촉 행사도 벌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은 보성차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보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더벤티와 협력을 통해 보성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왼쪽) 보성군수와 커피 전문점 '더벤티'를 운영하는 ㈜에스앤씨세인 박수암 대표.

여행경비 지원 '오늘 광양 어때?' 전국서 신청

40일만에 예산 절반 규모 접수

광양시는 2~5인 규모 개별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오늘 광양 어때?' 사업에 서울, 부산, 세종, 구미 등지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 어때?' 사업 공고를 낸 지 40여 일만에 예산 절반 규모의 사전 계획서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관광 동향을 반영해 광양시가 올해 처음 추진한다.

'오늘 광양 어때'를 통해 광양을 찾은 관광객은 서울, 부산, 세종, 구미 등 전국에 분포돼 있다.

광양시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관광지 방문, 소셜미디어(SNS) 인증 등의 지원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운산권, 구룡산권, 섬진강권 등의 권역 중 2~3개 이상의 권역을 방문하도록 하거나, 소셜미디어 인증 때 해당 관광지 정보는 필수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한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강화된 지원조건은 변경 공고일(올해 2월26일) 사전 계획서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변경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개별관광객 유인책 지원사업이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며 광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줬다"며 "강화된 지원조건이 더 많은 잠재 관광객에게 매력 넘치는 광양여행의 기회를 주고 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

순천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 지역 거주자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구례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고 등급

행안부 혁신역량 등 10개 지표 심사

구례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마다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 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과 10개의 세부 지표를 심사해 최종 등급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1개 지자체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례군은 ▲정례 조희 '다가가기' 행사 ▲오감만족 힐링캠프 ▲구례 판짚러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찾아가는 군민 공감 대화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한예종과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 ▲군 단위 최초 카키오 공유 자전거 도입 등의 혁신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군의 혁신은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평가의 모든 지표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고 전체적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